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포털트레이

닫기

제11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3.28-29)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전화 : 국제경제국 환경과학과 2100-7743 발표일시 : 2005.3.27

제 목 : 제11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3.28-29)

1. 한.중 양국의 환경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 11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2006.3.28-29간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박석범(朴錫凡) 국제경제국장과 徐慶華(Xu Qinghua) 환경보호총국 국제협력국장(국장급)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2.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환경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현재 진행중인 양국 협력사업으로서 황사 대책, 황해 보전, 환경산업 협력, 공동 환경기술 개발사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황해 쓰레기 투기 방지 문제 등 16개 사업의 이행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3. 특히 황사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2005.6월 양국 환경장관간에 체결된 ‘황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이행을 촉구하고, 중국 환경보호총국(SEPA)이 보유하고 있는 황사 관측망(43개소)중 황사발원지 및 한반도 이동경로상에 있는 6개 관측소의 황사 관측자료 제공 등에 대해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정부는 상기 MOU 체결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무상원조 자금으로 상기 6개 관측소의 관측장비 및 전송장비 개량을 지원키로 하는 등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또한 양국은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NEASPEC),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을 통한 동북아 역내 환경협력 강화방안과 기후변화 대응문제 등 지역적 또는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 및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파트너십(한.중.일.미 등 6개국)과 관련하여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개도국인 중국과 한국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 이번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은 그 동안 양국간 환경협력 현황 전반을 검토하고 동북아 지역내 및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대시킴으로써 양국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한중 환경협력 현황 자료 1부. 끝.

【참고자료】

한·중 환경협력 현황

2006.3.27(월)

환경과학과

1. 개 요

- 1993년 한·중 환경협력협정 체결이후 '94년부터 환경협력공동위를 주축으로 하여 양국간 환경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한·중 환경장관회담 등의 개최를 통하여 양국간 환경협력이 꾸준히 발전.

2. 구체적 협력사항

가. 양자차원의 협력

- 한·중 정상회담(2003.7월)
 - 10대 경험사업의 하나로 환경산업협력 강화에 정부, 업계, 학계 등이 참석하는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연례 개최
 -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황사 및 사막화방지 공동대처」 합의 : 동북아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체제 구축노력 황사, 사막화 방지 사업에 국제기구의 참여, 지원 공동 촉구
- ※ 3차의 장관급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개최('03.12, '04.9, '05.6월): 양국 정부, 전문가, 산업체 관계자 250명이 참석하여 상호간 환경 시장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적 구축방안 토의
- 한·중 환경장관 회담('05.6월 개최)
 - 양국 장관은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 아·태 환경회의(ECO-ASIA),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에서 정기적으로 회합
 - 한·중 정상회담(환경분야) 합의이행, 양국 환경부간 황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환경산업 투자포럼 연례화, EDCF 시범사업발굴, 한·중 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 초청연수실시, 황사·사막화 방지 공동대처 등 합의

○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 1993년 11월 체결된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매년 환경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 환경정책에 대한 대화, 환경협력사업 채택, 여타 관심사안 등 토의
- 환경공동위 합의사업
 - 제1차 환경공동위부터 환경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진행
 - 제10차 환경공동위(2005.1, 중국 장가계)에서는 환경산업 및 기술협력, 해양환경보전, 황사대응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황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등 16개 사업 추진 결정

나. 다자차원의 협력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 1999년 1월 서울에서 제1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각료급 수준에서의 정책 대화의 장으로 2005.10 제7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협력, 환경교육 네트워크사업,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공동연구, 중국서부 생태계 복원사업 등 추진

○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 1993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정부간회의에서 한·중·일·러·몽골·북한간에 발족
- 2000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의에서 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Vision Statement를 채택하고 동북아 대기 및 생태계문제를 다루는 협력체로 발전

○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 정부간회의(NOWPAP)

- 1994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정부간회의에서 한·중·일·러간에 출범
- 동북아 해양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서 2004년 12. 제9차 정부간 회의시 NOWPAP 사무국 출범(한·일간에 공동 사무소 설치) 및 NOWPAP 해역의 유류오염 방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긴급계획 한국,일본,러시아간 발표(중국은 내부절

차완료후 추후 서명)

-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 1993년 10월 한·중·일·러 등 10개국간 산성비 전문가 회의 개최 이후, 수차례 전문가회의 후 2000년도 10월 정부간 회의에서 정부간기구로 공식출범
 -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 침착물 조사·연구 및 국가간 협력증진 도모, 일본정부가 주도. 끝.